

# 고등학교 생활 가이드

---

대학 진학과 학업을 중심으로, For 고 1, 고 2

Laplace Club 국어멘토 말랑 CAU

2020-01-14

FETINA  
LENTE

3년간의 고등학교 생활과 이후 1년동안 학생들을 가르쳐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칼럼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소 부족한 면이 많고, 저의 주관적인 의견이지만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보다 더 나은 고등학교 생활하시고 대한민국의 피 튀기는 입시에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D

# 목차

I . 본인 프로필 .....	2
II . 학업	
1. 수시와 정시,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	3
(1) 수시와 정시에 대해 알아보자	
(2) 내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3)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고1, 고2)	
(4) 학년별 학기 중 수시:정시 비중	
2. 공부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	8
(1) 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숙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2) 선행학습은 필요한가? 적정량은 필요하다.	
(3) 어떻게 암기해야 하는가?	
3. 생기부 관리는 철저히 해야한다. ....	9
(1) 정시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생기부를 쓰는 방법, 필요한 점	
(3) 자기소개서?	
III . 마치며 .....	10
IV . 부록 .....	11
1. 추천사이트	
2. 추천 강의	

## 1. 본인프로필

이름 :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이 : 21

학교 : (현) 서울소재 의과대학 20학번 입학예정

(전) 지방사립 의과대학 19학번 자퇴

(전) 지방소재 자사고 졸업

### <경력>

-지역소재 수학과학원원 조교 (2019.05 ~ 2020.01)

-의대 자소서/MMI면접 대비 특강 진행 (2019.03 ~ 현재)

-고등학생 컨설팅/입시상담 (2019.03 ~ 현재)

-1년간 중3~고3 10여명 과외경력 (2019.03 ~ 현재)

### <입시실적> (18수시 6관왕 / 19수시 2관왕)

-18입시 경찰대학교 합격

-18입시 성균관대 자연과학계열, 고려대 바이오공학부, 지방소재 의예과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18입시 지방소재 의예과 2개교 학생부교과전형 합격

-19입시 삼릉의 의과대학, 서울소재 의과대학 학생부종합전형 합격

### <재학 중 성적>

-지방소재 자사고 졸업 (3년 평균 내신 1.50)

-18 수능 [국어 95(1) / 수학 96(1) / 영어 91(1) / 화학1 45(2) / 생명과학1 45(1)]

-19 수능 [국어 96(1) / 수학 85(2) / 영어 100(1) / 화학1 50(1) / 생명과학1 50(1)]

## II. 학업

### 1. 수시와 정시, 제대로 알고 대비하자.

#### (1) 수시와 정시에 대해 알아보자.

수시는 3년간의 학교생활을 바탕으로 내신과 생활기록부 내용을 통해 대학교에 입학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또한, 내신은 대학 입학에 있어서 수시선발에 쓰이는 교내 시험 성적을 의미합니다. 흔히 아시다시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태도 등을 총합한 성적을 '내신'이라고 합니다.

정시=수능입니다. 3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그 성적을 바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수시와 정시, 둘 중 하나를 택하는 양자택일이 아닌 둘 다 준비해야만 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포기하는 것은 크나큰 기회를 버리는 것이니 이른바 정시파이터의 방식은 옳지 않습니다.

#### (2) 내신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내신은 과목별로 준비하는 방법이 다르다고 할 수 있는데, 과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학교별로 다를 수 있음을 미리 알아두셔야 합니다.

##### -국어

먼저 국어는 복습이 생명입니다. 학교에서 진행되는 국어수업의 대부분은 문학작품에 대한 분석과 개념을 설명하는 글을 통한 공부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창의력과 사고력을 필요로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암기력과 응용력을 평가하는 과목이 국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배운 내용을 그날 야간자율학습 시간에 정리하거나 복습하는 과정을 통해서 꾸준히 암기해야 합니다. 중학교 때의 양과는 차이가 크기 때문에 그때그때 복습하고 시험기간에 여러 번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추천하는 교재로는 해당 학교의 교과서에 대한 자습서, 평가문제집입니다.

##### -수학

다음으로 수학입니다. 솔직히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하기도 합니다. 선행학습이 필요하냐고 물으신다면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천재가 아닌 이상 학교시험문제의 난이도를 한번 봤다고 소화하기는 어렵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저학년까지 열심히 수학선행을 할 필요는 없지만 중2 후반부에서부터는 어느 정도 선행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험을 대비할 때에는 크게 교과서, 유형서, 기출문제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면 여러 번 봐서 외우는 등 암기할 필요가 있고, 최소한 3번씩은 돌려봐야 합니다. 유형문제집, 예를 들면 썬과 같은 경우에는 많은 유형을 알아보는데 필요합니다. 어떠한 유형이 있는지를 알고, 모르는 유형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또한 기출문제집 같은 경우에는 모의고사 대비를 하면서 동시에 선생님들이 많이 참고하는 문제들이 실려있는 책이기에 꼭 풀어주셔야 합니다. 또한 수학의 핵심은 반복이자 양치기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영어

영어도 국어와 마찬가지로 하루하루 복습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학교 내신에서 사용되는 교재에는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기출, 외부지문이 대표적입니다. 교과서의 경우에는 수업하는 내용의 예-복습을 진행해야 하는데, 국어와 비슷한 방식으로 분석, 암기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자습서와 선생님의 필기를 비교하면서 중요한 부분은 강조하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또한 교과서의 지문들은 가급적이면 암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술 형이 출제되는 부분이니 암기는 필요합니다. Exam4You사이트가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부교재와 모의고사 기출의 경우에는 암기하기에 양이 까다롭습니다. 주요 표현이 있거나 한 경우, 해당 부분에 대한 암기만 진행하면서 해당 지문에 대한 분석, 변형문제 풀이 등을 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학원이 있다면 학원에 자료를 요청하고, 혼자라면 자료를 찾아보는 등의 노력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외부지문을 내는 학교들이 일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대비가 어렵기 때문에 평소에 영어실력을 기르기 위한 수능공부를 병행하는 것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 -사회(사회탐구)

사회는 대표적인 암기과목입니다. 필요한 능력으로는 자료분석 능력과 암기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주어진 자료를 해석하고, 선택지들 중에 옳은 것과 그른 것을 구분하는 유형의 문제가 많이 출제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들과 개념서에 담긴 내용들을 본인에게 맞게 단권화 시키고, 그 내용을 암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과 선생님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선생님이 기출문제나 당해년도 ebs수능특강, 수능완성의 자료를 많이 인용하므로 개념을 일찍 끝냈을 경우에는 그러한 교재들을 통해서 자료분석 방법을 연습하고, 내용을 암기하는 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좋은 내신을 받는 과정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과학(과학탐구)

과학은 계산과 함께 암기도 필요한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아시다시피 물리학, 화학은 풀어야 하는 문제가 많아 수학적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는 반면,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은 상대적으로 암기할 내용이 많아 암기력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선택하고는 합니다.

과학에 있어서는 선행학습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가장 선행학습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는 분야 중 하나가 과학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감히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학에서 말씀 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한번 보는 것과 다시 한 번, 그리고 여러 번 보는 것은 차이가 큼니다. 처음 배울 때에는 어렵더라도 점차 이해가 잘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고 어릴 때부터 선행을 하는 것은 크게 의미 있지는 않으며, 제 기준으로는 다음 학기에 배울 내용을 그 전 방학에 예습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신 시험에 있어서는 양치기가 수학만큼이나 중요한 과목입니다. 과학에서도 유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을 열심히 풀어주셔야 효과적으로 내신을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흔히 기출문제집이라고 하면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두 교재가 유명합니다.

## \*수능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가? (고1, 고2)

방학이 아닐 경우, 수능은 평소에 모의고사를 공부하는 것처럼 공부하시면 됩니다. 적어도 2학년 2학기까지의 학기 중에는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정책이 정시 80%처럼 변화하지 않는 실수를 바로잡을 수 있는 회복탄력성이 존재하는 수시를 위주로 챙겨주셔야 합니다. 학기 중에는 내신 위주로 공부해 주시되, 이제 방학 때에는 정시에 초점을 맞추어 주셔야 합니다.

방학의 경우에는 다음 학기 내용에 대한 연습과 더불어 수능준비를 해주셔야 합니다. 수능 준비라는 것이 그리 거창한 것은 아닙니다.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자신의 기본 틀을 닦는 것이 곧 수능 공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 또한 과목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국어

가급적이면 교재추천 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 정도는 알지만 이 글을 읽을 학생들을 위해 가급적이면 거르는 내용 없이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어와 같은 경우에는 고1~고2 때에는 기초를 쌓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다소 급한 학생들은 개념보다는 문제풀이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장기적인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문제풀이보다는 개념학습에 초점을 맞춰주셔야 합니다.

일부 학생들은 국어문제를 어떻게 푸냐는 말에 '감(感)'으로 푼다는 대답을 하고는 합니다. 이렇게 기초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풀이라는 성을 쌓으면 금방 무너집니다. 당장에는 감을 통해서 점수가 잘 나올지는 모르지만 고3에 들어가서 개념을 응용한 형태의 문제가 나온다면 맥없이 무너지고는 합니다. 아무리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는 당장의 성적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도 개념을 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인강을 듣거나 독학을 통해 개념을 쌓는 것입니다.

인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ebs의 윤해정 선생님이 강의하시는 개념의 나비효과 시리즈를 추천 드립니다. 2020년을 위해 입문편 또한 제작하셨기에 더욱 편하게 입문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무료로 제공되는 강의이기에 교재만 구매한다면 누구나 인강을 편하게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국어의 모든 파트를 다루고 있기에 그 누구의 강의보다 개념을 쌓는 데에 용이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인강 사이트의 경우는 따로 뒤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독학으로 국어를 준비하실 거라면 제가 추천하는 교재를 통해 개념을 익히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제가 생각하는 좋은 책은 “떠먹는 국어문법”, “떠먹는 국어문학”, “나쁜국어 독해기술”입니다. 세 책 모두 문어체가 아닌 구어체로 서술되어 있기에 더욱 친근하게 받아들일 수 있으며, 입문 용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상의 내용은 문제풀이를 통해서 습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이 착각하는 것이 국어문제를 푸는 것이 공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어는 다른 과목과는 다르게 문제를 푸는 행위 자체에는 의미가 없으며, 문제를 푼 후에 그 문제를 분석하는 것에 의미를 두어야 합니다. 문제를 풀었다면 이 선택지가 왜 틀렸는지, 그리고 왜 맞았는지를 지문 내에서, 혹은 자신이 알고 있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하듯이 적어보아야 하며, 자신이 그것을 정리할 수 없다면 문제를 제대로 푼 것이 아닌 것입니다. 괜히 국어 문제집의 해설집이 두꺼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분석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이 되어줄 수 있기에 해설을 참고하시면서 국어분석을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 -수학

사실 고1, 고2 때의 수능대비를 위한 수학공부는 크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특히 고1에는 배우는 내용이 수능과 직결되지 않을뿐더러 학교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 공부하는 양 만으로 수학실력이 향상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어와 마찬가지로 개념의 중요성은 여전합니다.

흔히들 수학은 양치기의 과목이라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고 높은 건물을 쌓더라도 그를 버텨낼 만한 기반을 쌓지 않는다면 무너지듯이, 고1, 고2 때에 할 수 있는 공부는 개념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입니다. 제가 추천하는 수학 공부방법은 방학 동안에 개념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입니다. 고난도의 문제일수록, 특히 상위권과 최상위권을 구분하는 21, 29, 30번의 킬러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더욱 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방학 동안에는 학기중의 문제풀이를 버텨낼 수 있을 만큼의 개념을 탄탄히 쌓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제가 추천하는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이라는 교재이며, 공식을 유도해내는 과정을 잘 담아내고 있기에 더욱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충분하시다면 유형문제집을 하나 푸시는 것 또한 추천드립니다. 개념을 안다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응용방법을 알아야 결론에 도달할 수 있듯이, 썬과 rpm같은 유형문제집을 병행하신다면 더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영어

사실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학생들은 중학교 때까지 한 영어 만으로도 이미 기초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등학교 때의 차이점은 필요한 문법 사항이 한정되어있다는 것과 문장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하는 것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첫 번째로, 단어를 꾸준히 외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숙제로, 그리고 시험으로 단어를 외워 왔겠지만 고등학교 때에는 단어를 모르면 글 자체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학원을 다니지 않더라도 꾸준히 단어를 외워주셔야 합니다. 단어책으로는 어휘끝 5.0을 추천합니다. 어렵지만 이걸 외우실 수 있다면 어느정도 수준에는 올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문법의 복습을 꾸준히 하셔야 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기본적인 문법들을 배우셨다면 고등학교 때에는 Reading에 사용되는 구조와 관련된 문법들과 문법 문제에 사용되는 문법들만 아시면 되기 때문에 문제를 풀고, 그에 대한 해설을 참고하면서 문법 사항들을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글에 대한 독해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셨겠지만 단어를 알고 문법을 알아야 문장 단위 해석이 가능하고, 그래야 독해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앞의 두 부분이 선행된다는 가정 하에 글의 독해를 진정으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글의 흐름, 전후관계, 인과관계를 파악하면서 독해하는 것이 필요하며, 대부분의 학생은 기출문제의 풀이와 분석을 통해 이를 소화하고는 합니다.

## -사회(사회탐구)

솔직히 잘 모릅니다. 제가 이과였기 때문에 사회탐구 모의고사를 준비하지 않아서 잘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개념서를 통해 개념을 습득하고, ebs교재와 기출문제의 자료를 분석하는 과정을 통해 자료분석능력을 기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고등학교 시절 문과 친구에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암기가 우선되는 과목이기에 개념의 경우에는 몇 년에 걸쳐서 복습을 진행해주셔야 수능에서 보다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학탐구)

전체적인 과학으로 보자면 방학 때에는 문제의 풀이보다는 개념의 습득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다니기보다는 ebs 인강이나 사설인강 사이트의 인터넷강의를 시청하면서 수능의 기초적인 개념들을 익혔고, 문제풀이와 같은 경우에는 내신대비기간에 과하다고 할 만큼 이루어지기 때문에 문제보다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다음학기의 내신과목에 맞는 인터넷강의를, 고등학교 2학년 때에는 이와 더불어서 실제로 수능에서 볼 과목에 대한 강의를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사

한국사와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 25점을 넘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역사시간에 딴짓하지 않고 수업을 들었다면 충분히 25점을 넘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교내 수업시간에 집중해서 듣고 내신을 대비하며, 고3 때에 짧게 복습하는 것만으로도 반타작은 충분하니 딱히 공부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

(4)학년별 학기 중 내신:정시 비중

-1학년 (9:1)

정시라는 개념이 없기에 수시에 치중하면서 모의고사에만 집중하는 기간입니다. 내신이 가장 중요하기에 내신에 가능한 힘을 쏟아 주시는게 바람직합니다.

-2학년 (8:2)

내신기간에는 내신에만 집중하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슬슬 수능공부를 조금씩은 해주셔야 하는 시기입니다. 내신에서도 슬슬 기출을 많이 내기 시작하니 정시공부는 어느정도는 필요합니다.

-3학년 (5:5)

당연히 3학년 1학기가 모든 시험 중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 때 만큼은 수능공부는 절대 하지 않고 내신에만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을 시기에는 무조건 수능공부를 꾸준히 해주셔야 합니다. 이때는 나태해지는 순간 뒤쳐진다는 생각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 2. 공부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

### (1)고등학교 때는 공부를 숙제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안됩니다.

중학교 때까지는 학원에서 숙제를 혼나지 않기 위해서, 혹은 추가공부를 하지 않기 위해서 했다면 고등학교 때부터는 확실한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숙제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숙제를 공부의 일환으로 보셔야 진정한 실력향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시더라도 숙제가 아니라 본인 공부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 (2)선행학습은 필요한가? 적정량은 필요하다.

항상, 그리고 언제나 교육관련 이슈의 정점에 있는 테마입니다. 제가 어떤 게 선행학습이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본인의 학년에 맞지 않는 상위학년의 내용을 공부하는 것을 선행학습이라고 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학습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현 입시체제에서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자들은 항상 공부를 할 때에는 여러 번 복습하는 방식으로 공부해야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고, 더 효율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보기에 처음에 이해가 안되었던 내용이 두번, 세번 보았을 때에야 이해된 것을 보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학생 개인의 실력향상을 위해서는 선행학습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선행학습을 한 학생과 하지 않은 학생이 같은 양을 공부한다면 누가 더 성적을 잘 받을까요? 그리고 누가 더 스트레스를 덜 받을까요? 네. 제 생각에는 한 학생이 더 성적을 잘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머리가 천재적이지 않다면, 가법계 전교 5등권 안에 들 수 있는 두뇌가 아니라면 선행학습을 통해 어느 정도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한도 내에서 선행학습을 양껏 진행해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3) 어떻게 암기해야 하는가?

대부분의 학생이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암기된다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지겠냐고 물어보면 방송에서, 그리고 책에서 이렇게 외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것이 효과적인 것은 맞지만 여러 번 보는 과정에서의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암기 잘하는 방법

- ① 암기할 내용을 학습한 뒤, 쉬는 시간을 이용하여 가볍게 눈으로 훑는다.
- ② 자율학습 시간을 이용하여 내용을 눈으로 한 번 더 복습하고, 자신만의 언어와 정리법을 이용하여 손으로 쓰며 정리한다.
- ③ 손으로 쓴 내용을 소리 내어 읽을 수 있는 장소에서 입으로 읽는다.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으로 곰씹으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 ④ 한주동안 공부했던 내용을 복습하는데, 눈으로 보고 입으로 읽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 ⑤ 시험 전에 문제집을 풀거나 예상문제를 출력하여 테스트를 보고, 자기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여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기존에 외우던 방식보다 암기를 더욱 수월하게 할 수 있다.

### 3. 생기부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한다.

#### (1)정시확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들어 뉴스를 통해 정시를 40%까지 확대하는 안이 발표되면서 수시의 중요성이 떨어진다고 언급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논술전형 유지, 그리고 교과전형의 활성화에 대해 언급하면서 수도권 대학들의 선발방법 변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전망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럴 예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특히 종합전형의 중요성은 아직 유효합니다.

정시선발이 확대되면 더욱더 n수 인원은 늘어나게 되며, 그에 따라서 현역으로 대학을 가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또한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교의 수준을 보는 것이 점차 없어지고 있는 추세이기에 일반고에서 생활기록부를 열심히 관리하고 내신을 잘 챙긴다면 기존보다 대학을 잘 가는 것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시가 확대되더라도 학생부 종합전형의 중요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2)생기부를 쓰는 방법, 필요한 점

생활기록부는 선생님이 학생을 평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기에 '생기부를 쓴다'라는 것에 어폐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학생이 제출한 자료를 기반으로 생활기록부를 작성하거나 혹은 학생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는 경우가 다반사이므로 결국에 생기부를 작성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학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전반에 대한 글이기 때문에 생활기록부를 세세하게 따져가면서 하지는 않겠지만 자료제출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는 크게 수업 중 활동, 공부과정, 심화탐구의 3가지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수업 중 활동의 경우에는 발표, 질문, 수행평가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경우에는 "어려움 극복, 지적 탐구심, 성실성, 협동능력, 리더십" 등을 드러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스토리를 만들어서 선생님께 제출해드려야 합니다. 공부과정의 경우에는 모두가 알만한 내용이 아닌 본인이 어려워했던 점을 극복한 경우를 서술해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절대 모두가 알만한 뻔한 스토리를 쓰지 마시고 본인만의 이야기를 쓰시기 바랍니다. 심화탐구의 경우에는 수업 중 배운 내용에서 궁금했던 것을 따로 탐구한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리한 문서를 출력하여 선생님께 공손한 말투로 전달한다면 좋은 생기부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 (3)자기소개서?

사실상 생활기록부보다 더 유명한 것은 자기소개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단체에 들어갈 때에도 솔하게 작성하게 될 것이 바로 자기소개서입니다. 그렇기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방법이나 담겨야 하는 내용에 대한 이해는 미리 해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등학교 1~2학년 시기는 자신을 알고 닦을 시간이지 자기소개서를 본격적으로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준비는 해주셔야 합니다.

자기소개서를 쓰기 위해서는 자기소개서에 쓰일 소재들을 미리 마련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소개서를 미리 써보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게 쓰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활동을 해야 자기소개서를 잘 쓸 수 있게 될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라면 한번쯤은 스스로의 생활기록부를 되짚어보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특히 고등학교 2학년 시기가 활동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이므로 반드시 시간을 내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해보시기 바랍니다.

### III. 마치며

사실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싶었지만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더 많은 내용을 담는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 같다는 생각에 10장 정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빈약한 내용일지 모르지만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또 이 자료를 읽는 모두의 고등학교 생활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공부에 대한 칼럼이기에 최대한 공부에 대한 내용 위주로 다루기 위해 노력했지만 공부가 고등학교 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좁을 것 같은 고등학교 안에서도 수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으며, 동아리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친구들과의 교류도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공부에 대한 칼럼을 읽고 고등학교 생활이 재미없다거나 공부만 하면서 보내야 하는 인생의 암흑기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으며, 노력만 한다면 학업을 하는 동시에 자유를 즐길 수 있는 시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이 모든 활동은 학생의 본분인 배움에 최선을 다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됩니다. 대학에 와서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때 자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는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있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후회하지 않을 만큼 공부해 보아라 입니다. 비록 제가 성인이 된지 1년밖에 안된 대학생이지만, 가장 느끼는 것은 주변 일에 치여서 공부할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때만큼 아무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시기는 흔치 않습니다. 나중에 1년을 더 써서 재수해서 대학을 가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단 지금 최선을 다해 공부하여 목표를 이루겠다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합니다.

-END-

FETINALENTE

급할수록 돌아가라

## IV. 부록

### 1. 추천 사이트

- 문제은행(학교기출) : 족보닷컴 (유료사이트)
- 분석자료, 사설자료 : 기출비 (네이버카페\_무료)
- 기출문제(모의고사) : EBSi (ebs공식사이트\_무료)
- 영어 자료 : 흥순범 영어카페, 아잉카, Exam4You (유료사이트)
- 생기부, 자기소개서 관련 자료
  - ①수시장인 (네이버블로그) <https://yolokotrsy.blog.me/>
  - ②이지올댓수시 (네이버블로그) <http://blog.naver.com/ezmath112>
  - ③모찌티처 (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studizm/>
- PPT자료 : 유피티연구소(네이버블로그) <https://blog.naver.com/rimiy>
- 픽토그램 : thenounproject(해외 사이트) <https://thenounproject.com/>

### 2. 추천 인강 \*개인적, 그리고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 (1) 국어

김승리(대성마이맥), 유대종(스카이에듀), 권규호(이투스), 윤혜정(EBS)

#### (2) 수학

한석원(대성마이맥), 현우진(메가스터디), 호형훈제(대성마이맥)

#### (3) 영어

솔직히 영어는 인터넷강의 안 들으시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 (4) 과학탐구

화학1 : 정훈구(대성마이맥), 고석용(메가스터디) / 생명과학1 : 윤도영(대성마이맥)